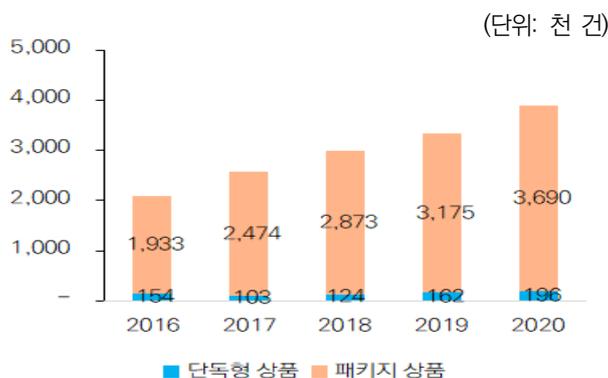


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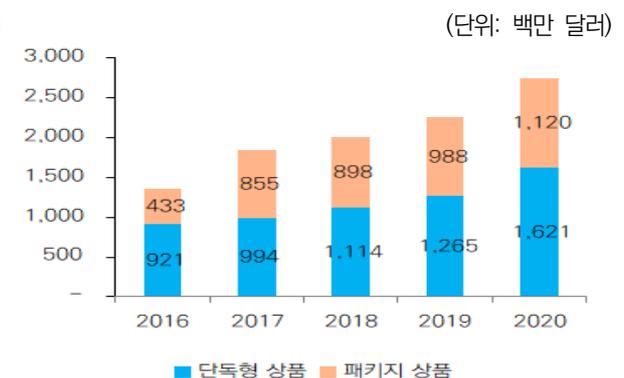
2020년 미국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업의 사이버위험 보장수요와 사이버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21.7% 증가한 반면, 사이버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건당 손해배상금액과 손해배상 건수 증가로 2019년 44.9%에서 67.0%로 크게 상승함. 보험전문 신용평가회사인 A. M. BEST는 사이버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어서 보험회사가 사이버보험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

○ 2020년 미국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업의 사이버위험 보장수요와 사이버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21.7% 증가한 27.4억 달러를 기록함¹⁾

- 2020년 미국 기업의 사이버보험 가입 건수는 389만 건으로 전년 대비 16.5% 늘어났으며, 사이버보험 보험료는 분기별 2019년 4/4분기 2.9%에서 2020년 4/4분기 11.1%까지 인상됨
 - Solar Winds, Facebook, Capital One 등 유명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미국 기업의 사이버위험 보장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임
- 사이버보험 중 계약 건수 기준으로는 패키지 상품 건수(369만 건)가 압도적인 비중(95.0%)을 차지하는 반면, 원수보험료 기준으로는 단독형 상품의 원수보험료(16억 달러)가 더 큰 비중(59.1%)을 차지함²⁾(2020년 기준)
 - 패키지 상품의 주요 가입자는 중소형 기업이며, 단독형 상품의 가입자는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남

<그림 1> 미국 사이버보험 계약 건수


자료: A. M. BEST(2021. 6)

<그림 2> 미국 사이버보험 원수보험료


자료: A. M. BEST(2021. 6)

- 1) 이하는 A. M. BEST(2021. 6)의 “Ransomware and Aggregation Issues Call for New Approaches to Cyber Risk” 및 AON(2021. 6)의 “2020 US Cyber Insurance and Performance”를 발췌, 요약함
- 2) 미국에서 판매되는 사이버보험은 특약 형태로 사이버위험을 보장하는 패키지 상품과 사이버위험만을 보장하는 단독형 상품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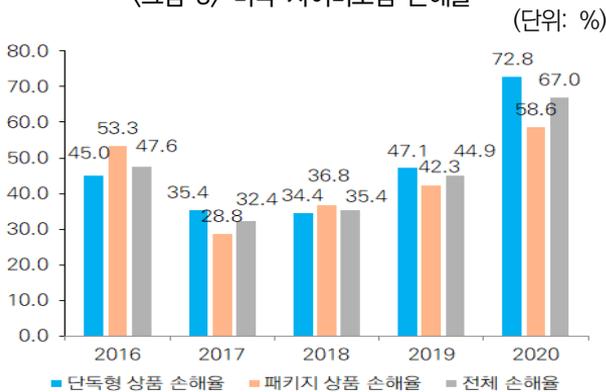
○ 사이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,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51%에서 2020년 48%로 소폭 하락함

-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(NAIC)에 따르면 사이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수는 2019년 192개에서 2020년 200개로 증가함
- 사이버보험시장 상위 5개 회사는 Chubb INA, XL Reinsurance American, American International, Travelers, Beazley USA이며,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4.8%, 10.7%, 8.3%, 7.6%, 6.5%임
 - Chubb INA는 패키지 상품만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인 반면, XL Reinsurance American, American International, Travelers, Beazley USA는 단독형 상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보험회사임

○ 사이버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건당 손해배상금액과 손해배상 건수 증가로 2019년 44.9%에서 2020년 67.0%로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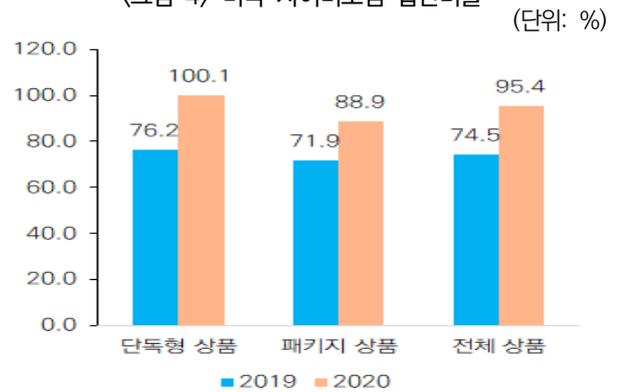
- 2020년 사이버보험 건당 손해배상금액은 7만 4,354달러로 2019년 4만 8,709달러에 비해 50% 이상 증가하였으며, 손해배상 건수는 2019년 1만 8,659건에서 2만 1,920건으로 상승함
- 2020년 사이버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67.0%로 2019년 44.9%에 비해 22.1%p 상승했으며, 합산비율(손해율 + 사업비율)도 95.4%로 2019년 74.5%에 비해 20.9%p 상승함
 - 특히 2020년 단독형 상품의 평균 손해율은 전체 사이버보험의 평균 손해율보다 5.8%p 더 높은 72.8%를 기록하였으며, 평균 합산비율도 100.0%를 넘었음

〈그림 3〉 미국 사이버보험 손해율



자료: A. M. BEST(2021. 6)

〈그림 4〉 미국 사이버보험 합산비율



자료: AON(2021. 6)

○ 보험전문 신용평가회사인 A. M. BEST는 기업의 사이버위험 관리수단인 사이버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사이버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어서 보험회사가 사이버보험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

- 최근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면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100% 사전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은 미국 기업들은 사이버보험을 새로운 사이버위험 관리수단으로 보고 있음

-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원격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보안 시스템 및 대책이 미흡한 일부 기업을 겨냥하는 랜섬웨어 공격은 크게 증가하였으며, 보안회사인 Sophos에 따르면 2021년 1~2월 기준 랜섬웨어 공격자의 요구금액은 평균 185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
- A. M. BEST는 사이버보험을 사이버위험 관리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업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보험회사는 사이버위험 성향 및 위기상황 분석, 관리, 상품 개발을 포함한 사이버보험 관련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